

글로벌 경제 '비명'... 중재안 수용해야



한용수의
돌직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전쟁은 이미 두 나라를 떠나 전 세계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거대한 재앙으로 번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 기준 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를 기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예고하며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해 '공포의 카운트다운'을 강요 중이다. 협상이라기 보단 전 세계를 인질로 잡은 위험한 도박이다.

글로벌 경제는 이미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었다. 최근 알리안츠 리서치(Allianz Research) 보고서는 중동 전쟁 영향으로 2026년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5%포인트 내린 2.6%로 하향 조정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유가가 일시적으로 배럴당 18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보고서는 특히 '나비 효과 경제학(Butterfly Effect Economics)' 개념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작은 지정학적 변화가 한국과

같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중동 전쟁까지 겹치며 상황은 악화일로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보복 관세와 전쟁 여파가 맞물려 전 세계 가계 실질 소득은 전년 대비 3.2% 급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의 주요국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배럴당 63달러)으로 돌아오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117달러, 이란 에너지 시설 타격시 174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7일 기준 리터당 1961.56원으로 2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7.8%, 전쟁 이전인 2월 27일 대비 15.9% 올랐다. 당분간 추가 인상도 유력하다. 석유화학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납사)' 수급도 비상이다. 정부의 수급 안정 발표에도 중동발 물가상승 불안감에 종량제봉투까지 수요가 늘며 일부 지자체는 구매 수량 제한에 나섰다.

산업계 피해는 수치로 나온다. 한국석유화학협회 자료에 따르면, 나프타 가격 폭등으로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의 가동률

은 평년 대비 30% 이상 급락했다. 트럼프가 벌인 전쟁에 한국 서민의 장비구니와 공장 굴뚝을 직접 타격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류비와 물가 인상에 분노한 미국 시민들의 '노 킹스(No Kings)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 중이다. 지지울 방어에 급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불만을 덮으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추산에 따르면 미군은 개전 초기 100시간 동안 작전 운용비로만 약 2900억 원을 소모했다. 무고한 민간인 살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전쟁범죄'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시한이 60일인데, 이 시점이 임박해오며 트럼프도 다급한 상황이다.

과국을 막을 기회는 아직 남았다. 외신에 따르면 이집트와 파키스탄 등 국제사회가 마련해 양국에 전달한 '2단계 평화 중재안'이 유일한 실마리다. 이 안은 45일간의 임시 휴전을 통해 즉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는 게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8일 오전 9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수천 발의 미사일 화염이 아닌 평화를 위한 극적인 약속이길 기대한다.

hys@metroseoul.co.kr

비상의 조건



기지수첩
차현정
(산업부)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의 57조2000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메모리 가격 반등과 인공지능(AI) 수요 확대가 맞물리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섰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서는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장밋빛 전망과 달리 내부에서는 또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임금 및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조는 사측의 성과급 지급안에 반발하며 교섭 중단을 선언했고,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

업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체계의 구조적 개편이다. 노조는 실적 확대에 걸맞은 보상 체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사업부 간 수익 격차와 조직 안정성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 양측의 시각차는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보상 기준' 자체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이어지며 단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시기가. 반도체 산업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시장에서 경쟁사와의 격차를 좁혀야 하는 중요한 국면에 놓여 있다. 이 시점에서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노사 갈등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지금이 삼성전자에 있어 '기회의 시간'인 동시에 '시험의 시간'이

라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급 실적과 안정적인 재무 여건을 바탕으로 투자 여력은 충분하지만 내부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할 경우 성장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번 갈등은 노사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핵심 산업인 만큼 생산 차질이나 의사결정 지연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더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날아오를 것인가'다. 실적이 급상승기류를 탄 지금, 삼성전자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이다. 내부의 균열을 봉합하고 조직의 힘을 하나로 모을 때 비로소 더 높은 도약이 가능하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초격차'를 말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조직 내부의 균열부터 메우는 일이 먼저일지 모른다.

h/yeon@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8일 (음 2월 21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 실속이 따릅니다. 60년생 하는 일마다 성에 안찬니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72년생 서류 문제로 하루를 소비하는 운입니다. 84년생 우울한 하루를 보냅니다.



49년생 주변사람의 사기를 더욱 조심하세요. 61년생 마음속의 근심은 마치 태산 같 습니다. 73년생 새로운 카드를 만드는 일은 되도록 삼가세요. 85년생 돈 거래를 하지 마세요.



50년생 형제가 앞서 길을 갈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62년생 모든 일에 대한 결과는 결국 자기 몫입니다. 74년생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86년생 우한이 생길 소지가 다분합니다.



51년생 허욕을 부리면 큰 것을 잃게 됩니다. 63년생 문어발식 확장은 결국 공멸로 이어 집니다. 75년생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운입니다. 87년생 지갑 조심 돈 조심 불량 배를 조심하세요.



52년생 선전을 위하여 분주히 이동을 하게 됩니다. 64년생 업무적으로 동분서주하 게 됩니다. 76년생 배우자와의 여행 수가 보이는 날입니다. 88년생 애인과의 여행을 준비하세요.



53년생 동기간으로 인한 망신 수가 다소 있습니다. 65년생 조심과 좌중을 요합니다. 77년생 마음이 해야하면 업무 처리에 곤란함을 겪습니다. 89년생 물건파손을 특히 조심하세요.



54년생 서류상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66년생 감정보다 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78년생 호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90년생 애인과의 외출은 흥합니다.



55년생 되도록 나서지 않는 것이 이득입니다. 67년생 명예를 양보하고 실리를 취함이 이득입니다. 79년생 투자는 불길하고 보험등은 이득을 창출합니다. 91년생 언행 일치를 명심하세요.



56년생 보람차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68년생 안방이나 현관문이 정복인 것은 절대 피하세요. 80년생 과음은 반드시 주의하세요. 92년생 하루가 즐겁고 한결 편안합니다.



57년생 하루가 편안하고 평탄한 날입니다. 69년생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게 됩니다. 81년생 서운함 감정이 크게 폭발합니다. 93년생 금전적인 이득이 따라오고 이성문제도 잘 풀립니다.



58년생 명예도 높아지고 하는 일도 잘 풀립니다. 70년생 막혔던 재물의 물꼬가 터 집니다. 82년생 돼지띠나 용띠의 도움이 이득을 달고 옵니다. 94년생 안정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59년생 독한 면을 보임도 이득이 됩니다. 71년생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83년생 현장 경험도 큰 도움이 됩니다. 95년생 친구의 애인에게 고백을 들으니 입장이 난처합니다.

김상회의四季

원진살



가족은 누구보다 가깝고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상처를 입는다. 때로는 얼굴도 모르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변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기도 한다. 사주에서 말하는 원진살은 이런 관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다. 원진살은 애써 잘해도 자주 어긋나는 관계를 뜻한다. 까닭 없이 서로 미워하고 멀리하는데 남이야 안 보면 그만이라지만 가족은 피할 수 없는 관계이고 거리를 두기 어렵다. 그래서 원진살은 부부, 부모와 자식, 형제처럼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함께 생활해야 하니 자주 마주쳐야 하고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기 어렵다. 원진살은 감정이 쌓인다는 특징이 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였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서로를 미워하는 감정으로 변한다. 별 뜻 없는 행동과 말투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에는 큰 산처럼 감정이 누적된다. 참다 보면 속이 터질 듯 불쾌해지고 어느 순간 큰 폭발을 일으킨다. 가족 사이의 원진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원진살로 인한 불화를 막는 해법은 서로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이다. 가족으로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털어내면 감정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 기대치를 낮추면 감정이 상할 것도 없다.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서로 느끼는 맛은 다르다. 누군가는 맛있다고 해도 누군가는 맛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상대방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인정하면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원진살이 평생 불화 속에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대를 덜 하고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화는 화북으로 변할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레코드를 돌파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7				3
		5		4		6		
	3	9				4	2	
4			1	2				
	6							1
			9		3			8
	7	2				1	5	
		4		1		2		
5			2					7

5	1	8						4
				6	3			1
						8		2
		1		5				7
	5		7		3			8
	6			9		2		
3			1					
9				4	2			
1						4	2	3

2	9	8	7	6	5	4	3	2	1
6	8	7	9	1	2	3	4	5	6
7	9	1	9	6	8	2	1	2	3
8	7	9	6	9	6	2	1	2	3
2	1	2	3	4	5	6	7	8	9
9	6	8	2	1	8	5	7	6	5
9	2	7	1	8	9	6	8	2	1
1	2	9	6	7	8	9	2	8	7
8	8	6	2	2	9	9	7	7	1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8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9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